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신 혜 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의 노화경험과 적응은 평균 수명, 배우자 유무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등에서 남성노인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통적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사회에서의 역할행동에 대한 기대도 다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2000년 7.1%이고, 이 중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 비율은 68%로 여성 노인수가 남성 노인의 수보다 많고, 이러한 경향은 고령일수록 현저하게 나타나 고령으로 갈수록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많다. 여성의 평균 수명은 78.1세, 남자의 평균 수명은 70.6세로 여자가 남자의 평균 수명보다 8세 정도가 높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0). 즉, 여자가 남자보다 장수하고 홀로됨의 경험을 더 많이 겪게 된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대부분이 여성노인이라 볼 수 있으며, 독거노인의 문제가 곧 여성노인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 있는 비율에 있어서도 남성노인은 86.4%, 여성노인은 27.6%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의 약 3배 정도(Joung, 1999), 특히 여성노인들의 고연령 집단일수록 배우자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의미있는 사람들(significant others)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Wayne et al., 1985), 이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상실 후 여성노인들의 삶의 질에 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들은 다른 노인들에 비해 심리적,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권한도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배우자 상실에 따른 심리적 불안, 경제적 불리한 조건, 지위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여성노인들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뒷받침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노년기 주거요구 파악을 위해 배우자 유무 및 건강상태를 하위설정 기준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다당함을 입증한 Oh 와 Lee(1992)의 연구결과에서도 시사하듯이 노인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배우자 유무와 건강상태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배우자 있는 노인이나 자녀동거 노인들보다 낮게 나타나고(Jeon & Kim, 2000; Jo & Shin, 1991; Ju & Youn, 1993; Tower, & Ksal, 1996),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높고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은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보고가 있듯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교수

투고일 2001년 8월 30일 심사회의일 2001년 9월 12일 심사완료일 2001년 12월 21일

이(Youn & Lee, 1997) 배우자 유무가 노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만족도를 여성노인의 삶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채택하여 그 관계에 대한 상관성 여부를 검증에 보고사하녀, 특히 배우자 유무가 여성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이에 대한 여성노인들과의 관련 변수와의 연구가 부족하여 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만족도의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나아가 여성노인의 질적인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 1)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과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한다.
- 2)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과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건강상태 정도를 파악한다.
- 3)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과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파악한다.
- 4)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및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 1) 자아존중감 :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Jeon Byoung Je(1974)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한 도구로 Jeon(1988)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통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2) 건강상태 : 질병이 없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행복감을 지니고 모든 신체기관 및 조직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Lee Young Ja(1989)가 개발한 노인의 신체건강 사정 도구를 통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3) 생활만족도 :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주위환경과 잘 대응하여 개인의 목표와 욕구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Youn Jin(1982)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통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시 일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여성노인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과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일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N구 노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을 사전조사하고 노인정에 나오는 65세 이상의 여성노인 12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국문해독이 가능하며
- 2) 면담에 응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있으며
- 3) 사고흐름에 일관성이 있으며
- 4)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

3.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Jeon Byung Je(1974)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Jeon(1989)이 수정 보완한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1점에서 5점까지의 평점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으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Jeon Si Ja(198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60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04이다.

2) 건강상태 측정도구

Lee Young Ja(1989)가 개발한 노인의 신체건강 사정도구 20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29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11이다.

3) 생활만족도 측정도구

Youn Jin(1982)이 개발한 20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oung, Kim, Lee(2000)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3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21이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0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1인이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직접면담에 의해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 1)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과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이들간의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 2) 두 집단간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및 생활만족도와 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종교, 교육정도, 자녀수, 월 용돈 상태, 용돈부담자, 주요 가족지지 제공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배우자 있는 여성과 배우자 없는 여성간의 차이를 나타낸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chi^2=12.952$, $p=$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n=129)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129) N(%)	the spouse's existence elderly women (N=64) N(%)	the spouse's non-existence elderly women (N=65) N(%)	X ²	P
Age	65-69	34(26.3)	25(39.1)	9(13.9)	12.952	.000***
	70-74	42(32.6)	19(29.7)	23(35.3)		
	75-79	39(30.2)	15(23.4)	24(36.9)		
	80-	14(10.9)	5(7.8)	9(13.9)		
Religion	yes	84(65.1)	50(78.1)	34(52.3)	6.140	.046*
	no	45(34.9)	14(21.9)	31(47.7)		
Education	no school	84(65.1)	41(64.1)	43(66.2)	0.000	1.000
	elementary	29(22.5)	15(23.4)	14(21.5)		
	middle school	11(8.5)	5(7.8)	6(9.2)		
	high school	5(3.9)	3(4.7)	2(3.1)		
No. of children (N)	none	15(11.6)	11(17.2)	14(21.5)	0.000	1.000
	1-3	103(79.9)	48(75.0)	45(70.3)		
	4-	11(8.5)	5(7.8)	6(9.2)		
Pocket Money /Mon	deficiency	54(41.9)	30(46.9)	34(52.3)	7.511	.027*
	ordinary	64(49.6)	31(48.4)	23(35.4)		
	sufficiency	11(8.5)	3(4.7)	8(12.3)		
Living expense load	by herself	34(26.4)	15(23.4)	26(40.0)	16.189	.000***
	childrens	64(49.6)	38(59.4)	19(29.2)		
	others	31(24.0)	11(17.2)	20(30.8)		
Main family Supporter	none	13(9.7)	5(7.8)	8(12.3)	6.539	.038*
	sun · grand	59(46.1)	32(50.0)	27(41.5)		
	sun · daughter	57(44.2)	27(42.3)	30(46.2)		

* $p < .05$

.000), 종교($\chi^2=6.140$, $p=.000$), 월용돈상태($\chi^2=7.511$, $p=.000$), 용돈 부담자($\chi^2=16.189$, $p=.000$), 주요 가족지지 제공자($\chi^2=6.539$, $p=.000$)이었다(Table 1참조).

대상자의 연령은 70~74세 분포군이 32.6%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은 65~69세 노인이 39.1%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반면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은 75~79세 이상 노인이 36.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냄으로써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종교에 있어서는 종교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은 78.1%이고,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은 52.3%로 나타나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무학의 경우가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은 64.1%,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은 66.2%로 두 집단 모두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수는 1-3명인 경우가 79.9%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75.0%)과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70.3%)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용돈상태는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은 보통이다(48.4%)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낸 반면에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은 부족한 편이다(52.3%)라는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나 두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전체 여성노인의 8.5%만이 용돈에 대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용돈부담자는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에게 있어서는 자녀인 경우(59.4%)가 가장 많았고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은 본인인 경우(40.0%)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어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요 가족지지 제공자는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은 아들과 손자(50.5%),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은 딸(46.2%)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여 두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2.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과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만족도

본 연구결과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과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만족도는 <Table 2>와 같다.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35.37점,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28.63점으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 이는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이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시사한다.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의 건강상태 정도는 평균 52.59점,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건강상태 정도는 평균 40.67점으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 이는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이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보다 건강상태가 좋음을 시사한다.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정도는 평균 66.34점,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정도는 평균 52.29점으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이는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이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보다 생활만족도 정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3. 여성노인들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에서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건강상태($r=.406$, $P=.000$),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r=.524$, $P=.000$),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r=.504$, $P=.000$)간 유의한 수준에서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간의 상관성($r=.524$, $P=.00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Youn과 Lee(1997)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생활만족도에 큰 설명력을 갖는 변수는 심리적

<Table 2> Self-esteem, health status, life satisfaction between the spouse's existence elderly women and the spouse's non-existence elderly women (n=129)

Variables	the spouse's existence elderly women		the spouse's non-existence elderly women		t	P
	M	SD	M	SD		
Self-esteem	35.37	5.18	28.63	5.72	7.05	0.000
Health status	52.59	9.94	40.67	6.50	-10.09	0.000
Life satisfaction	66.34	13.57	52.29	11.03	6.62	0.000

* $p<.05$

(Table 3) Correlation matrix of study variables

(n=129)

Variables	Self-esteem	Health status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1.000		
Health status	.406***	1.000	
Life satisfaction	.504***	.504***	1.000

* p<.001

측면인 자아존중감이라 설명된다.

IV. 논 의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및 고찰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은 65~69세 노인이 39.1%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반면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은 75~79세 이상 노인이 36.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냄으로써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이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에 비해 고령의 연령집단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일수록 노인들의 유배우율이 낮아진다는 Joung 등 (2000)의 결과를 반영한다.

연구대상자의 교육정도가 여성노인 전체 중 무학이 차지하는율은 65.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Joung, Kim & Lee, 2000; Kim & Park, 2000; Youn & Lee, 1997)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여유있는 생활을 하므로 생활만족도도 높고, 고독감, 소외감이 낮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Go, 1995), 노년기의 적응력을 높이는 변인으로 교육수준은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연구대상자의 용돈상태는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은 보통이다(48.4%)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낸 반면에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은 부족한 편이다(52.3%)라는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나 두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전체 여성노인의 8.5%만이 용돈에 대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정서적 부양에 대해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는(Krause & Liang, 1993) 보고와 유사한 결과로 기존 연구들에서도(Jo & Jo, 2000; Kim & Park, 2000; Lee, 1999; Park, Seo & Oh, 1995) 경제상태의 만족여부가 노후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노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울증의 원인이 되며 용돈이 많은 노인이 적은 노인에 비하여 생활만족의 정도가 높고 객관적 경제상태보다는 주관적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Hong, 1992; Jo & Shin, 1991; Joung & Seo, 1997; Park, 1998). 한편 Kim(1997)은 무배우자 여성노인을 빈곤의 취약집단으로 제시하였고, Joung 등(2000)은 배우자없이 홀로 사는 여성노인에게 자녀의 지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과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이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29.7점으로 나타난 Youn과 Lee(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Song과 Park(1992)의 연구에서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배우자유무와 정적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신뢰, 사랑, 돌봄, 가치감을 보장 받을 때 강화되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배우자 유무가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Rodin 와 Langer(1980)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면 환경에 대한 조절력이 감소되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는데, 자존감은 정신·사회적 건강의 기초가 되므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노인들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길이 된다.

따라서 노인이 되어가면서 상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아개념이고 노인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증가는 노인으로 하여금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점(Lee, 1987)에서 자아존중감은 노인들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노인에 대한 간호중재시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간호중재가 요구

되며 이러한 것이 곧 성공적인 노화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과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건강상태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이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보다 건강상태가 좋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Shin(1996)과 Choi(1992)의 연구결과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o(1990)가 그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여성노인들의 경우 건강 악화는 배우자가 없음으로 인해 돌봄제공자가 적거나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이는 여성들은 경제적 자원뿐 아니라 인적자원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많은 연구들에서 건강은 노인의 생활만족도, 즉 삶의 질에 가장 밀접한 관련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Davis et. al, 1992; Jo & Shin, 1991; Ju & Youn, 1993; Quinn, 1983) 현대사회에서 노인건강의 문제는 간호전문직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간호사는 홀로된 여성노인들이 겪고 있는 건강문제를 심도있게 파악해야 한다.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과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이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보다 생활만족도 정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많은 연구들에서도 배우자 없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배우자 있는 노인보다 낮게 나타나(Hong, 1992; Jeon & Kim, 2000; Jo & Shin, 1991; Ju & Youn, 1993; Park, 1998; Thompson, 1984; Tower & Ksal, 1996) 배우자 유무는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은 의미있는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듯이(Wayne et. al, 1985) 배우자의 유무가 여성노인의 생활만족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특히 여성노인이 경우 고려될 수 있도록 홀로 사는 비율이 높는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적 관계 등 의미있는 이웃과의 관계망 형성을 촉진시켜주는데 간호제공자들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여성노인들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는 자아존중감과 건강상태($r=.406, P=.000$),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r=.524, P=.000$),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r=.504, P=.000$)간 유의한 수준에서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간의 상관성($r=.524, P=.001$)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Youn과 Lee(1997)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생활만족도에 큰 설명력을 갖는 변수는 심리적 측면인 자아존중감이라 설명된다.

자아존중감과 건강상태 : Song과 Park(1992)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심리적 제특성들간의 상관분석에서 자아존중감이 인생만족, 노인 생활만족, 애국심과 각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그리고 고독감, 심리적 긴장, 육체적 긴장과는 각각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Lee(1987)는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양로원 노인이 가정노인보다 자아존중감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다. 노인의 인지기능, 자아존중감과 우울정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건강에 대한 인식을 들고 건강에 대한 인식정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Sung, 1997). Neuhaus 등(1982)은 자아존중감과 건강간의 관계연구에서 건강하다고 인식한 노인은 장래에 대하여 낙관적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질환이 있거나 활동제한을 받고 있는 노인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자아존중감과 건강상태는 서로 상관성이 있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 :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에 대하여 Linn과 Hunter(1979)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들이 실제 그들의 나이보다 더 젊게 느끼고 삶에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Kuhlen(1984)은 노인들에 관한 연구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줄어 들고 이는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낮아진 자아개념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선행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아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Seo & Kim, 1995)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심리적 손상이 적어지고(Shin & Seo, 1994),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에 유익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보다 건강, 소외 및 노후생활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1990).

한편, Schwartz 등(1984)은 노인이 높은 인생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지녀야 한다고 하여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시사했다.

특히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Youn & Lee, 1997), 본 연구에서도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 : 건강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들은 대체로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보다 건강한 노인들은 그들의 생활에 더 만족하고(Quinn, 1983),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Go, 1995; Jo & Shin, 1991; Ju & Youn, 1993; Lee, 1999; Oh & Lee, 1992; Park, 1988).

Joung 등(2000)은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 있음을 밝혔고, 노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율이 높아지고 노인의 건강상태는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은 생리적인 적응력을 의미하므로 건강은 노인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노인의 생활에 대한 만족여부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예시해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설명되어지며, 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닌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과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만족도를 알아보고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여성노인간호를 위한 효율적인 간호중재 전략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과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간의 차이를 나타낸 일반 특성으로는 연령($\chi^2=12.952$, $p=.000$), 종교($\chi^2=6.140$, $p=.000$), 월용돈상태($\chi^2=7.511$, $p=.000$), 용돈 부담자($\chi^2=16.189$, $p=.000$), 주요 가족지지 제공자($\chi^2=6.539$, $p=.000$)이었다.
- 2)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35.37점,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28.63점으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7.05$, $P=.000$). 이는 배

우자 있는 여성노인이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시사한다.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의 건강상태 정도는 평균 52.59점,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건강상태 정도는 평균 40.67점으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10.09$, $P=.000$). 이는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이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보다 건강상태가 좋음을 시사한다.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정도는 평균 66.34점,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정도는 평균 52.29점으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6.62$, $P=.000$). 이는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이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보다 생활만족도 정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 3)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는 자아존중감과 건강상태($r=.406$, $P=.000$),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r=.524$, $P=.000$),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r=.504$, $P=.000$)간 유의한 수준에서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미루어볼 때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에 비해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만족도 모두 낮게 나타남으로써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여성노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여성노인들의 질적인 삶을 위하여 친척 또는 이웃과의 효율적인 관계를 맺도록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을 유지하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2. 제언

- 1)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 2) 다른 집단의 노인들에게 같은 관련변수가 어떻게 영향력을 갖는지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Davis, M. A., Neuhauser, J. M., Morits, D. M. & Segal, M. R. (1992). Living Arrangements and Survival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 the Nehanes Epidemiologic Follow-up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2(3), 401-406.

- Choi, E. S. (1992). *A correlation study of family support, loneliness, health status in the elderly patients*. Unpublish Master's dissertation, The Kyung 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 Go, S. D. (1995). *A Study on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Unpublish Doctoral dissertation, The Ewha wome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Hung, S. J. (1992). *A comparative study on elderly between Korean and Korean immigrant in U.S.A*, Unpublish Master's dissertation, The Kyung 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 Jeon, K. Y., Kim, J. O. (2000).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 Social adaptation of the spousal bereaved elderly. *Journal of Korea Family*, 38(1), 155-170.
- Jeon, S. J. (1988). A study depression & self esteem of the Elderly.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Research*, 10, 125-144.
- Jo, B. U. (1990). Intergenerational Family Solidar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Aged Parents. *Journal of Korea Gerontology*, 10, 105-124.
- Jo, O. H., Shin, H. S. (1991).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widows. *Journal of Korea family*, 29(4), 115-130.
- Jo, W. S., Jo, B. E.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Aged Widows and Their Sisters: Its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Korea Gerontology*, 20(2), 197-213.
- Joo, S. S., Youn S. R. (1993). A Comparative Study on the General Health between the Couple and Single Aged. *Journal of Korea Gerontology*, 13(1), 55-62.
- Joung H. J., Seo, B. S. (1997). A correlation study of personal factors and generation factor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welfare of the Elderly women. *Journal Korea Home Management*, 15(4), 149-163.
- Joung, H. J., Kim, T. H., Lee, D. S. (2000).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Korea Gerontology*, 20(2), 49-70.
- Kim, G. T., Park, B. G. (2000).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Network of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1), 153-168.
- Krause, N., & Liang, J. (1993).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hines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48(6), 282-291.
- Kuhlen, R. G. (1984). *Developmental changes in motivation during the years. A Reader in social psych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e, U. B. (1993). *What factors affect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Unpublish Master's dissertation, The Chung Buk University of Korea, Chung Buk.
- Lee, Y. J. (1989). *A Study of the Scale to Measur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 In Regard to Measures of Physical Functioning*. Unpublish Doctoral dissoration, The Ewha Wome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Y. J. (1999). *A Study on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Stress of the Elderly who lives alone*. Unpublish Doctoral dissertation, The Sung Shin Wome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Linn, M. W., & Hunter, K. (1979). Perception of Age in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4(1), 46-52.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0). *The Women Life by Statistics*.
- Neuhaus, R. H. (1982). *Successful aging*, John Wiley & Sons.
- Oh, C. S., Lee, Y. S. (1992). Criteria for Elderly's Substitutions to identify Their Housing Needs - Focusing on Spouse's Existence and Health Conditions. *Journal of Korea Gerontology*, 12(2), 123-137.
- Park, C. S. (1998). An Analysis on the

- Time-use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Korea Gerontology*, 18(2), 36-46.
- Park, K. R., Seo, M. K., Oh, C. O. (1995). The actual family life and the needs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or with the spouse - With a focus on the family, consumer and housing life. *Journal of Korea Home Management*, 13(4), 101-114.
- Quinn, W. H. (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7-73.
- Rodin, J., & Langer, Z. (1980). Aging Labels: the Decline of Control and the Full of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Issue*, 36(2), 12-29.
- Soo, M. K., Kim, J. S. (1995). An Analysis of Life Satisfaction Determinants among Elderly Persons in Korea. *Health Research of Korea*. Seoul.
- Shin, D. S. (1996). *Correlations among Family Support, depression and physical health state in elderly People*. Unpublish Master's dissertation. The Kyung 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 Shin, H. S., Seo, B. S. (1994). Study on causal relationships among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aged fathers. 1994). *Journal of Korea Gerontology*, 14(2), 121-132.
- Thomson, W. (1984). Effects of bereavement on self perceptions of physical health in elderly widows and widowers. *Journal of Gerontology*, 39(3), 309-314.
- Tower, R., & Ksal, S. (1996). Gender, marital closen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elderly couple. *Journal of Gerontology*, 51(3), 115-129.
- Wayne M. Usui et al. (1985). Socioeconomic Comparisons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0(1), 110-114.
- Youn, J. H., Lee, H. K. (1997). The Effects of Self-Esteem, Health Status, Family relationship and Social Participat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Aged widows. *Journal of Korea Gerontology*, 17(1), 289-304.

- Abstract -

Self-Esteem,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Women According to the Spouse's Perspective

Shin, Hye-Sook*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degrees of self-esteem,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women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The results will contribute to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for promoting the quality of life for elderly women.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129 elderly women.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personal interviews using questionnaires from Nov. to Dec. of 2000. The measurement tools were the self-esteem scale developed by Rosenberg and translated by Byong-Je Jong (1974), the health status scale developed by Young Ja Lee(1989), and the life satisfaction scale developed by Jin Youn(1982).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SPSS computer program, and it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t-test and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chi^2=12.952$, $p=.000$), religion ($\chi^2=6.140$, $p=.000$), spending money ($\chi^2=.7511$, $p=.000$), living expenses load ($\chi^2=16.189$, $p=.000$), and the major support provider

* Professor, College for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chi^2=6.539$, $p=.000$),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n the existence elderly women.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steem ($t=7.05$, $P=.000$), Health status ($t=-10.09$, $P=.000$), and life satisfaction ($t=6.62$, $P=.000$) between the two groups.
3.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health status ($r=.406$, $P=.000$),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r=.524$, $P=.000$), and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r=.504$, $P=.0000$) in elderly women.

Key words : Self-esteem, Health status, Life satisfaction